

대한민국 100년 이끄는 '첨단기술 선도도시' 발돋움

2022 광주·전남 핵심 성장동력 <2> 광주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 에너지기술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기초·응용과학분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광주시·울산시·강원도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1조 원을 들여 원천·응용 기술개발, 연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울산시·강원도는 지난해 11월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 공동구축에 나섰다.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중복없이 각 지역의 기존 재원·인프라 활용의 이점을 살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서남권)에는 바이오 신물질·선제·냉각기술 등

의료·에너지신산업·친환경자동차 등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이다.

앞서 정부에서도 고자기장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에서 '단기구축시설'로 국가 고자기장 연구시설을 선정했다.

단기구축시설이란 국내 유일의 시설로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의 다양한 범위 활용이 가능해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구축해야 할 연구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껏 고자기장 기술은 전국 각지의 연구원·대학 등에서 분산 연구되면서 관련기술 집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고자기장 연구 관련 산업분야가 첨단 의료·에너지신산업 등 국가 및 광주의 미래전략산업과 일치한다고 판단, 풍부한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거

대 가속기, 핵융합원자로 등 국가 대형연구시설들이 대전·포항 등에 집중돼있어서 남권 과학기술발전의 허부구조를

지향해줄 고자기장 연구센터를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한국전기연구원, KBSI 등 우수 연구기관시설이 갖춰진 점도 긍정적이다.

앞서 광주시는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기획연구를 시작하는데 이어 2020년 6월 KBS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기응용 과학 기술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소와 공동협력을 논의, 같은 해 3월에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KBSI 주관으로 대전에서 '국제 고자기장 기술 포럼 2021'을 개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국가 고자기장 연구센터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용역'을 추진한다. 8월에는 연구시설 구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1조원대 신소재 기술개발...울산·강원 공동협력 첨단의료·에너지신산업·친환경자동차 연계가능 서울대·KBSI 등 협약...3월 예타 기획 용역 추진

신소재 연구시설 ▲울산(동남권)에는 핵융합·전기 추진 등 에너지 연구시설 ▲강원(중부권)에는 의료 진단기기·암치료 기술 등 의생명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고자기장 연구시설은 방사광가속기, 중성자 산란 실험장치와 함께 현대 응집물질 물리분야 3대 핵심 거대 연구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해외 과학 선진국들은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구축해 관련 기술에서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 있는 고자기장 연구시설은 총 12개로 ▲미국 3개 ▲일본 3개 ▲프랑스 2개 ▲중국 2개 ▲네덜란드 1개 ▲독일 1개 등이다.

고자기장 응용기술은 암진단용 MRI, 신약개발용 분석장비 등의 의료분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분야, 전기 추진제 등 수송분야, 고효율 산업용기기 등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고자기장 연구 선점 시 미래 기초과학 선도 도시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지역 전략산업인 첨단



공정 선거 캠페인

6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상무지구 평화공원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정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 밝혀지나

진실화해위 2기, 3,986건 신청
영암 383명·완도 125명 등 희생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수천여건의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이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을 통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화해위는 6일 서면 자료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1만1,83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 6,469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검토중인 사건은 5,110건이다.

접수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7,380건 ▲적대세력 관련 1,657건 ▲인권침해·조작의혹 580건 ▲확정판결 133건 ▲항일독립운동 66건 ▲해외동포사 1건 ▲기타 2,018건 등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3,986건의 진실규명 신청(집단희생 2,948건·적대세력 1,038건)이 접수됐고, 이중 2,334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영암 723건 ▲함평 378건 ▲영광 345건 ▲순천 264건 ▲구례 240건 ▲진도 220건 ▲완도 204건 ▲장흥 203건 ▲해남 198건 ▲화순

196건 등이었다. 영암에서 접수된 사건은 1947년 12월부터 1952년 1월까지 금정면, 군서면, 덕진면, 도포면, 미암면, 삼호읍, 서호면, 시종면, 신북면, 영암읍, 학산면 등에서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과정 중 383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함평 진실규명 대상자 153명은 1949년 4월부터 1954년 2월 사이 함평읍, 해보면, 신광면, 대동면, 손불면, 월야면, 나산면 등에서 군경의 수복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과정 중 국군 11사단 군인, 함평경찰에 희생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민간인 125명은 1948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완도군 완도읍, 고금면, 군외면, 금당면, 금일읍,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약산면 등에서 군경의 부역혐의자,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 중 희생됐다.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오늘 무안국제공항 진입로 개통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 7일 전면 개통된다.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15호선으로 무안 정계면 상마리 정계삼

거리에서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8.12km 구간이다. 도비 945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 착공 후 11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기존 도로 구간은 농기계와 공사차량 등 이용이 잦은 구간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도 구불구

불해 평소 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교통 불편이 큰 구간이었다. 그동안 목포 등 서남권 주민들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목포IC를 기점으로 15km가량 멀고, 약 4분 이상 더 소요되며 통행료 지급 등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이용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김영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SERVANTE